

## 국악과 지구촌의 만남 세계 속의 국악

민요, 창작 국악, 기악곡, 관현악곡 등 여러 악곡을 배우며 국악을 체험해 보자. 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음악의 가치를 알고, 더 나아가 이를 계승·발전시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보자.

아리랑의 발자취	1차시	52쪽
진도 아리랑	1차시	54쪽
강원도 아리랑	1차시	55쪽
경북공타령	1차시	56쪽
벚노래	0.5차시	57쪽
신고산타령	0.5차시	58쪽
오돌또기	2차시	59쪽
동창이 밝았느냐(우조 초수대엽)	1차시	60쪽
수제천	1차시	61쪽
영산회상	0.5차시	62쪽
종묘 제례악	1차시	63쪽
우리나라 음악사 이야기	1차시	64쪽
배움 넓히기	1차시	68쪽







## \* 우리나라 기악곡의 종류

- 제례악** 궁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종묘 제례악'과 '문묘 제례악' 등이 있다.
- 연례악** 궁중 연회 등에서 연주하는 음악으로, '수제전', '여민락' 등이 있다.
- 군례악**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개선 등에 연주되던 음악으로, '대취타'가 있다.
- 산조** 기악 독주곡으로 장구 반주가 따르며,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대금 산조', '해금 산조', '피리 산조' 등이 있다.
- 시나위** 무악에서 파생된 기악 합주곡으로, 일정한 장단의 틀 안에서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연주한다.



제례악



연례악



군례악

## \* 우리나라 성악곡의 종류

- 시조** 시조시를 음악적인 틀에 넣어 부르는 성악곡으로, 주로 선비들이 부르던 음악이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이며,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 등이 있다.
- 가곡** 전문 음악가인 가객이 시조시를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5장 형식의 전통 성악곡으로, 남창, 여창, 남녀창이 있다.
- 판소리** 긴 이야기를 노래하는 창자가 북장단에 맞추어 소리, 아니리, 발림으로 표현하며, 현재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다섯 마당이 전해진다.
- 민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해 오는 전통적인 노래로, 생활의 슬픔과 기쁨 등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 가사** 전문 음악가인 가객이 비교적 긴 사설을 노래하는 전통 성악곡으로, 현재 12가사가 전해진다.
- 잡가** 전문 소리꾼이 가사와 곡조가 일정하고 길이가 긴 사설을 노래하는 것으로, 잡가의 '잡'은 정가를 제외한 모든 음악을 뜻한다.
- 범패** 절에서 재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이다.



시조



판소리



범패

민요는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 모습이 표현되고,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소박한 노래이다. 우리나라 민요는 노동과 놀이에 관한 노래가 많으며, 메기고 받는 형태로 많이 불린다. 민요는 각 고장의 사투리나 억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특유의 가락으로 표현된다.



**향토 민요**

어느 국한된 지방에서 불리는 민요로, 사설이나 가락이 극히 소박하고 향토적이다. 전문 소리꾼이 아닌 일반인들이 만들어 부르며 곡조나 사설이 즉흥적인 것이 특징으로, 주로 노동요가 많다.

**통속 민요**

각 지방의 민요가 지역성의 한계를 벗어나 여러 지역에서 불리고 유행하는 민요로,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유포되어 유행된 경우가 많다.

**서도 민요**

지역 황해도, 평안도  
음계 수심가토리



특징 으뜸음에서 5도 위의 음을 떨어주며 애수적이고 감상적이다.

대표곡 수심가, 배따라기, 몽금포타령, 해주 아리랑, 싸름 등이 있다.

**동부 민요**

지역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일부  
음계 메나리토리



특징 강원도, 함경도 민요는 대체로 애원조의 노래가 많으며, 높은 음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선율의 구조가 많다. 경상도는 빠른 장단과 경쾌하고 강한 억양을 가진다.

대표곡 신고산타령,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옹헤야, 쾌지나 칭칭 나네, 밀양 아리랑 등이 있다.

**경기 민요**

지역 서울, 경기도, 충청도 북부  
음계 경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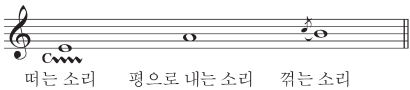


특징 감정 표현이 경쾌하고 가락이 단순하며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대표곡 풍년가, 아리랑, 경북궁타령, 군밤타령, 도라지타령 등이 있다.

**남도 민요**

지역 전라도, 충청도 일부  
음계 육자배기토리



특징 격렬하게 떠는 소리와 꺾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를 사용하여 표현이 구성지고 극적이다.

대표곡 육자배기, 새타령, 농부가, 진도 아리랑, 강강술래 등이 있다.



동해

제주도

**제주 민요**

지역 제주도  
특징 제주 특유의 사투리 영향을 받아 이국적인 느낌이 나며, 어업에 관한 노래가 많다.

대표곡 오돌또기, 멀치 후리는 소리, 너영나영, 이아흥타령 등이 있다.



**학습 목표** | 아리랑의 유래와 특징을 안다.

아리랑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슬픔과 기쁨 등 가슴 속에 품은 한을 선율에 붙여 불렀던 노래로, 민족의 동질성을 지탱해 주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의 의미를 넘어서 역사적·문화적·예술적 의미를 지니며,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해 준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면서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며, 공동체의 정체성의 징표이자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아리랑은 대단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리랑은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노래를 모두 포함한다.

**활동 1** | 아리랑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을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경기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아리랑

CD 아리랑.mp3

아 - 리 랑 - 아 - 리 랑 - 아 라 - - 리 - 요 - - - -

동부(경상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밀양 아리랑

CD 밀양 아리랑.mp3

날 줌 보 - - 소 날 줌 보 - - 소 날 줌 - - 보 - - 소 - - - -

서도(황해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해주 아리랑

CD 해주 아리랑.mp3

아 리 아 리 - 얼 쑤 아 라 - - 리 - 요 - - - -

동부(강원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정선 아리랑

CD 정선 아리랑.mp3

아 리 - - 랑 아 리 - - 랑 - 아 라 - - - 리 - - - - 요 - - - - -



광복군 아리랑

CD 광복군 아리랑.mp3

아 - 리 - 랑 아 - 리 - 랑 아 라 - 리 - - 요 - -



미국 선교사 **할버트**가 최초로 서양 악보로 옮긴 '자진 아리랑'

**할버트(1863-1949)**

1886년 조선 정부의 초청 교사로 내한하여 육영공원 교사로 5년간 봉직하다가 1892년 귀국한 후, 1893년 다시 내한하여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직후 고종의 경호를 담당하였다.



'자진 아리랑'이 새겨진 문경새재 비석









**학습 목표** | 남도(전라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CD 진도 아리랑.mp3

### 세마치장단

남도 민요의 특징은 떠는소리, 꺾는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의 육자배기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남도(전라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받는 소리

떠는음: 글게 떨어준다.

꺾는음: 본래 음보다 높이 낸 다음 꺾어서 소리낸다.

평으로 내는 음

아 - 리 랑 응 응 응 아 라 리 가 - - 닳 네

메기는 소리

문 - 경 새 재 - 는 웬 고 - - 갠 가

구 부 야 아 구 부 구 부 야 눈 - 물 이 - 로 다

Fine  
D.C.

\*장단은 세마치장단이지만 조금 느리게 부를 때는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부르기도 한다.

#### 더 알아보기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은 진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일원에서 유희요로 즐겨 불리며, 세마치장단에 맞춰 부르는데, 중모리장단에 맞춰 부르기도 한다.

### 활동 1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를 알아보자.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

육자배기토리: 남도 지방의 음악적 특징으로 글게 떨어져 내는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를 사용하여 구성지게 부른다.

### 활동 2 육자배기토리의 시김새를 살려 불러 보자.

**활동 Tip** 영화 '서편제'에서 '진도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을 감상해보고, 빠르기의 변화에 따른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지도한다.





🎯 학습 목표 | 동부(강원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CD 강원도 아리랑.mp3

### 엇모리장단

동부(강원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메기는 소리 동부 민요의 특징인 메나리토리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아 주 까 리 동 백 아 열 - 지 마 - 라 - - -

흘러내리는소리

누 구 를 - 괴 자 고 - - 머 리 에 기 름 -

받는 소리

아 리 아 리 쓰 리 쓰 리 - 아 - 라 리 - 요 - - -

아 리 아 리 - 열 씨 구 - - 노 다 가 세

### 활동 1 메나리토리를 알고 시김새를 살려 불러 보자.

열 - 지 마 - 라 - - - 누 구 를 - 괴 자 고 - -

**메나리토리** 동부 민요의 음악에 사용되는 음계(미, 솔, 라, 도, 레)로, '솔'은 주로 내려가는 가락에 사용된다.

→ 강원도·함경도·경상도 민요(동부 민요)에 나타나는 토리로 구성음은 '미·라·도'를 중심으로 하고, '솔', '레'음은 경과음이나 장식음으로 주로 사용한다.

### 활동 2 엇모리장단을 익히고 말붙임새를 연습해 보자.

아	주	까	리	동	백	아	
①		○	○		○		
덩	덕	콩	콩	덕	콩		
└───┘		└──┘		└──┘		└──┘	
3소박		2소박		3소박		2소박	

\*3소박과 2소박이 함께 쓰인다.



#### 더 알아보기 강원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의 구성음은 '미, 솔, 라, 도, 레'로 구성되어 있으며, 3소박과 2소박이 섞여 있는 혼합 박자로 엇모리장단을 사용하며, 내려가는 가락에 '라-솔-미'를 빠르게 흘러내려서 소리 내며, '레'를 꺾어주는 시김새를 사용한다.







🎯 학습 목표 | 동부(경상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CD 뱃노래.mp3

## 굿거리장단

동부(경상도) 민요 | 허화병 편곡 | 국립국악원 악보

경상도 민요는 빠른 장단과 경쾌하고 강한 억양이 특징이다.

*mf* 받는 소리

여기 야 디 여 - 차

여기 야 디 여 - 여기 - 여 - 차 뱃 놀 이 가 잔 다

*f* 메기는 소리

부 딛 치 는 파 도 - 소 - 리 잠 을 - 깨 우 니

*mf*

들 려 오 는 - 노 - - 소 - 리 처 럼 도 하 구 나

### 더 알아보기 뱃노래의 특징

동부 민요의 경상도 지역의 어부들이 부르는 노동요 중 하나로 바다 위를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어부들의 흥과 고단함이 가사에 담겨있다. 구성음은 '미·솔·라·도·레'의 메나리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지음은 '라'이며 하행하는 가락에는 '솔'음이 나타난다.

### 활동 1 굿거리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을 익혀 보자.

기본 장단

①		○		○		○	
덩	기덕	콩	뽀뽀	콩	기덕	콩	뽀뽀

변형 장단

①		○		○		○	
덩	덕	콩	덕	덕	콩	덕	콩

### 활동 2 가사에 맞게 신체 표현을 하며 불러 보자.

**활동 Tip** 뱃노래를 주제로 창작된 기악곡을 찾아 감상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예 원일 작곡의 '신뱃놀이' 중 제3악장 '뱃노래'는 느린 굿거리장단으로 동부 민요 '뱃노래'가 연주되고 장단이 점점 빨라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다.





📌 학습 목표 | 동부(함경도)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 신고산타령.mp3

## 자진타령장단

동부(함경도)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메기는 소리

가을 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 - 요 - -  
삼수갑 산머루다 래 얼크러 설크러 졌는 - 데 - -

귀뚜라미 - - 슬피 울어 고향 - 생각이나 누 - 나 - -  
가지가 지 - - 산새들이 절로 - 쌍쌍이나 누 - 나 - -

받는 소리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 - 더허야

그리운 내 고향이 로 - 다 - - - - -

\*신고산은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역 부근 마을 이름이다. 원래 고산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철도가 생기고 역이 들어서면서 옛날 고산은 구고산이 되고 역이 들어선 곳이 신고산이 되었다.

활동 1 동부 민요 중 함경도 지방 민요의 특징을 살려 불러 보자.

귀뚜라미 - - 슬피 울어 어허야 - - 더허야

\*흘러내리는 가락을 자연스럽게 표현.

### 더 알아가기 신고산 타령

신고산타령은 '어랑 어랑 어허야'의 후렴구를 따라 '어랑타령'이라고도 하며, 구성지고 소박한 향토색을 풍기는 민요로 1900년대의 개화기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삼수', '갑산'은 함경도 지방에 있는 지명이다. 성음은 '미·솔·라·도·레'로 되어 있으며 이 노래가 메나리토리의 특성을 보이는 부분은 내려가는 가락에 '라·솔·미'를 빠르게 흘러내리는 시김새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높은 음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내려오는 것이다.

활동 2 장단에 유의하여 불러 보자.

가	을	바	람	소	슬	하	니
○	○	○	○	○	○		

낙	엽	이	우	수	수	지	고	-	요	-	-
○		○				○		○			



🎯 학습 목표 | 제주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한다. CD 오돌또기.mp3

## 곳거리장단

제주 민요의 특징은 생활 속의 도구를 반주 악기로 사용하며, 어업과 관련된 노래가 많다. 제주 민요 | 국립국악원 악보

메기는 소리

오 돌 - 또 - - - - 기 저 - 기 춘 향 - 나 - 온 - 다

달 - 도 밝 - - - - 고 내 가 머 리로 갈 - 까 나

받는 소리

둥 그 대 당 실 둥 그 대 당 실 여 - 도 당 실 연 자 - 버 리 고

달 - 도 - 밝 - - - - 고 내 가 머 리로 갈 - 까 나

\*오돌또기는 여흥을 즐길 때 불렀던 '유희요'이다. 오돌또기의 사설에는 한라산, 서귀포 해녀, 산포조어, 성산일출, 사봉낙조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가 등장한다.

### 활동 1 제주 민요의 특징과 종류를 알아보자.

#### 더 알아보기 제주 민요의 특징

제주 민요의 특징은 생활 속의 도구를 반주 악기로 사용하며, 어업과 관련된 노래가 많다.

민요	특징	종류
오돌또기	생활 속의 도구를 반주 악기로 사용하였다. 예) 물허벅, 태왁 등	놀이 부르는 소리
고기잡이 소리	멀치 후리는 소리, 해녀 노 젓는 소리	고기잡이 소리
농사짓기 소리	흑병에 부수는 소리, 검질매는 소리	농사짓기 소리

### 활동 2 제주 민요의 특징을 살려 불러 보자.

오 돌 - 또 - - - - 기 저 - 기 춘 향 - 나 - 온 - 다

살짝 굴러 부드럽게 부른다. 뛰어가기 음정에 유의한다.

#### 더 알아보기 오돌또기의 특징

'오돌또기'는 메기는소리 4장단과 받는소리 4장단의 선후창 형식으로 부르며 앞뒤소리가 균형이 잡힌 장절 형식(章節形式)으로 여흥을 즐길 때 불렀던 '유희요'다. 구성음은 5음으로 경기 민요의 음구성과 같지만, 음의 기능 발생법 등에는 차이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부녀자들이 이런저런 노래를 부를 때 악기보다는 물독인 '허벅'을 두들기거나 물바가지인 '태왁'을 물 위에 띄워놓고, 나뭇가지로 친다.



# 동창이 밝았느냐 (우조 초수대엽) 1차시



🎯 학습 목표 | 가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CD 동창이 밝았느냐(우조 초수대엽).mp3

남구만 작시

**더 알아보기** 동창이 밝았느냐(우조 초수대엽)의 특징  
 동창이 밝았느냐'는 가곡 중 처음 부르는 곡으로 '초수대엽'이라고도 한다. '초수대엽'은 곡의 순서를 의미할 때는 초수(初數)로 첫 번째 곡을 의미하며, 일부에서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식(數)으로 사용하여 '식대엽'이라고도 한다. 곡은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이다. 형식은 5장으로 전주곡인 대여음과 간주곡인 중여음을 넣어서 대여음, 초창, 2장, 3장, 중여음, 4장, 5장순으로 연주한다. 남창, 여창, 남녀창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활동 1** 노래와 관현악 반주의 어울림을 느끼며 감상해 보자.
- 활동 2** 시조와 가곡을 비교하여 빈칸을 적어 보자.

구분	시 조	가 곡
내용	조선 시대 후기에 발생한 음악으로, 시조시를 가사로 일정한 가락에 얹어 부르는 노래이다.	전문 소리꾼이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다양한 가락에 얹어 부르던 노래로, 남창, 여창, 남녀창으로 나뉜다.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음계	3음 음계, 계면조	평조와 계면조
장단	5박과 8박 장단	16박과 10박장단
형식	3장 형식	5장 형식
	초창 —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중창 — 소치는 아희 놓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종창 — 재너머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나니(생략)	<b>대여음(전주)</b> 1장 — 동창이 밝았느냐 2장 — 노고지리 우지진다 3장 — 소치는 아희 놓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b>중여음(간주)</b> 4장 — 재너머 5장 —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나니
반주	장구나 간단한 가락 악기, 무릎장단	관현악



📌 학습 목표 | 악기 편성과 연음 형식을 알고 감상한다. CD 061쪽\_수제천.mp3

‘수제천’은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궁중 음악으로 연음 형식의 매우 느리면서 불규칙한 박자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백제의 가요인 ‘정음사’를 노래하던 성악곡을 관악 합주곡으로 만든 것으로, 4장으로 구성된 계면조이며 ‘정음’이라고도 한다.



**악기 편성** 소금, 대금, 향피리, 해금, 아쟁, 장구, 박, 좌고 등으로 편성된다.

**연음 형식** 피리가 주된 가락을 연주하다가 쉬는 동안 대금이나 다른 악기가 이어서 연주하는 형식이다.

**더 알아보기** 연음 형식

연음 형식은 ‘음을 이어준다.’는 뜻으로, 합주를 할 때 주선율을 연주하던 향피리가 잠시 쉬는 동안 다른 악기들(대금, 소금, 해금 등)이 주선율을 계속 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듯이 들리게 되며, 이러한 음악 형태는 주로 기악곡에서 나타나는 연주 형태이다.

**활동 1** 악기 편성과 연음 형식을 알고 감상해 보자.



♩. = 30

대금

피리

(연음 부분)

**활동 2** ‘수제천’을 반주 음악으로 하는 처용무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① 신라 현강왕 때 <처용설화>에 기원을 둔 춤으로 가면 무용이다. 처용무는 민간에서는 신앙성을 띤 주술전승으로, 궁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에 사용되는 정재로 천년이 넘는 향악정재이다. 또한 궁중에서는 사악한 귀신과 병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처용탈을 쓰고 구나를 하는 나례(麗禮)의식 중 하나였으며, 조선 시대에는 화합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궁중의 행사인 연향에서도 행해졌다.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처용무는 독무로 추어졌으나 기록이 없으며, 조선 세종 시대 때 개찬되어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가 현재까지 전승되어온다.

처용무 공연 장면



**활동 3** 백제 가요 ‘정음사’를 알아보자.

② 정음사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시대의 노래이며 행상을 하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걱정하며 부르던 노래로,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오 다롱도리”의 가사로 되어 있다.

정음사	해석
달하 노피곰 도다샤	달남아, 높아 좀 솟아서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멀리 좀 비취 주세요
어귀야 어강도리	어귀야 어강도리
아오 다롱도리	아아 다롱도리





▶ 학습 목표 | 한배에 따른 형식의 변화를 알고 감상한다. CD 관악 영산회상.mp3 / 현악 영산회상.mp3

‘영산회상’은 ‘영산회상불보살’이라는 불교 가사를 가진 성악곡이었으나, 가사는 없어지고 모음곡 형태의 기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다. 악기 편성과 쓰임에 따라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현악 영산회상’,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관악 영산회상’,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평조회상’의 세 종류 악곡이 있으며,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진행되는 한배에 따른 형식의 음악이다.



**한배에 따른 형식** 느린 곡으로 시작하여 점점 빠른 곡으로 이어가는 형식을 말하며 ‘한배’란 빠르기를 뜻한다.

**활동 1** ‘영산회상’의 연주 순서와 연주 방법을 알고 감상해 보자.

**더 알아보기** 한배에 따른 형식

느린 곡으로 시작하여 점점 빠른 곡으로 이어가는 형식을 말하며 ‘한배’란 빠르기를 뜻한다. 이러한 형식의 곡은 ‘가곡’, ‘영산회상’, ‘산조’ 등이 있다.



▶ 연주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 하현도드리는 ‘현악 영산회상’에만 나온다.



**활동 2** ‘영산회상’을 알아보고 빈칸을 적어 보자.

**더 알아보기** 영산회상

‘영산회상’은 ‘영산회상불보살’이라는 불교 가사를 가진 성악곡이었으나, 가사는 없어지고 기악으로만 연주되는 음악이다. 원래의 영산회상은 현행 영산회상의 상영산 1곡에 해당하지만 기악곡으로 변화되면서 상영산에 이어 중영산, 세영산, 가락덜이의 변주곡이 첨가 되어 모음곡으로 늘어났다.

구분	현악 영산회상	관악 영산회상	평조회상
연주 형태	줄풍류	대풍류	관현악
곡의 분위기	조용하고 평온하다	장엄하고 씩씩하다	화려하고 장대하다
음악의 쓰임	선비나 지식인의 풍류 음악	무용 반주(군악 제외)	춘앵전의 반주 음악, ‘상영산’은 피리, 대금 독주곡

**활동 3** 그림을 보고 ‘삼현육각’에 쓰인 악기를 찾아보자.

**삼현육각** 피리2, 대금, 해금, 장구, 북이 각각 하나씩 편성되는 풍류로, 무용에 반주로 쓰일 때는 ‘삼현육각’, 감상용으로 연주되면 ‘대풍류’라 한다.



김홍도의 ‘무동’

**활동 4** ‘영산회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보자.



▶ 학습 목표 | 종묘 제례악의 구성을 알고 감상한다. CD 종묘 제례악.mp3

‘종묘 제례악’은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서 제례를 드릴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악기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춤으로 표현하는 악(樂, 기악), 가(歌, 노래), 무(舞, 춤)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보태평 11곡과 무덕을 칭송하는 정대업 11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묘 제례악’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묘 제례가 행해진다.

**더 알아보기** 종묘 제례악

‘종묘 제례악’은 역대 왕의 공덕을 악기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이를 춤으로 표현하는 악(樂, 기악), 가(歌, 노래), 무(舞, 춤)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활동 1** ‘종묘 제례악’의 배치와 구성을 알고 감상해 보자.

**악**  
(樂)



종묘의 댕돌 위에 편성되는 등가와 댕돌 아래에 편성되는 헌가에서 번갈아 연주하는 음악으로, 보태평과 정대업 등으로 나뉘어 있다.

등가에서의 연주는 하늘을 의미하고, 헌가에서의 연주는 땅을 의미하며, 일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  
(歌)



‘종묘 제례악’의 악장은 문덕을 노래하는 보태평과 무공을 노래하는 정대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악장 궁중의 제전이나 연례 때 악기 연주에 맞추어 부르던 노래를 말한다.

**무**  
(舞)



종묘에서 제례를 지낼 때 추는 춤인 일무를 말하는 것으로, 문덕을 노래한 보태평에서는 문무를 추고, 무공을 노래한 정대업에서는 무무를 춘다.

문무 왼손에 악, 오른손에 적을 들고 정적이면서도 부드럽게 추는 춤이다.

무무 앞에 4줄은 목검, 뒤에 4줄은 목창을 든 채 강하고 힘차게 추는 춤이다.

**활동 2** ‘종묘 제례악’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아보고, 계승·발전 방안을 토의해 보자.

구분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계승·발전 방안
종묘 제례악	조선 왕조와 명운을 같이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를 자랑한다.	우리 조상들에 의해 창조된 악·가·무에 따른 종합적 예술 형태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	우리 음악유산의 기록 방법(악보나 기호)을 모색하고 채록하여 자료화 한다.

**활동 3** 종묘로 현장 체험을 떠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고 발표해 보자.

구분	소개	위치	관람 시간	관람 요금	관람 규칙	기타
종묘	조선 왕조의 제례를 봉행하는 유교 사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9:00~18:00	내국인(만 25세 ~ 64세 이하), -1000원	흡연 및 인화성 물질 소지 불가	사적 제125호 매주 ‘화요일’은 휴관





# 우리나라 음악사 이야기 1

## 상고 시대 음악

상고 시대 음악은 독립된 예술 형태가 아니라 종교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하였으며, 집단적인 특징이 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과 같은 제천 행사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추수가 끝난 후에는 하늘에 감사드리는 제사를 올렸다. 이러한 제천 의식에서 음악이 춤과 함께 행하여졌다. 상고 시대의 악기로는 함경도 서포항 유적 뼈 피리와 현악기인 '고' 등이 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피리 부는 사람)



함경도 서포항 출토 뼈피리



광주 신창동 유적지 출토 현악기와 복원된 모습의 현악기 '고'

## 삼국 시대 음악

### 고구려

중국,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음악이 고구려에 들어왔으며, 여러 악기를 수용하였고, 왕산악이 중국에서 들여온 7현금을 개량하여 거문고를 만들고 많은 거문고곡을 작곡하였다.

### 백제

백제는 마한의 음악 문화를 바탕으로 인접 국가와의 상호 문화 교류를 통하여 외래 문화를 수용하였으며, 미마지는 중국에서 배워 온 기악무를 일본에 전파하였다. '정음사', '선운산', '무등산', '방등산' 등의 노래가 '고려사'의 '악지'에 기록되어 있고 '정음사'는 기악 합주곡으로 변화되어 수제천으로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다.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금동대향로'에 새겨진 5명의 악사 모습을 통해 당시 연주된 악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백제금동대향로



### 현재 복원된 5악사의 악기



백제고

백제금

백제적

백제소

완함





신라

가야의 우륵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와서 가야금, 노래, 춤을 가르쳤으며 가야금은 기악 연주, 노래, 춤의 반주 악기로 궁중과 민간에 널리 사용되었다.



우륵(이종상 작품)



무용총 벽화 - 거문고 연주자



목 긴 향아리 토우의 가야금

통일 신라와 발해 시대 음악

통일 신라의 음악은 삼국의 음악적 요소가 결합하여 더욱 수준 높은 음악이 되었다. 신라의 가야금이 기악 연주 또는 춤과 노래의 반주 악기로 사용되었으며, 삼현삼죽(거문고, 가야금, 향비파, 대금, 중금, 소금)이 널리 쓰였다. 중국에서 진감 선사(진감)에 의해 당나라에서 불교 음악인 범패가 전래되었으며, 국가 음악 기관인 음성서를 설치하여 음악을 관장하고 육성하였다. 발해의 악기로는 발해금이 있었으며, 왕립 음악 기관인 '태상시'가 있었다.

**범패:** 불교 의식음악으로 절에서 재를 올릴 때 사용하는 음악이다. 범패의 종류에는 '안채비소리', '훗소리', '짓소리', '화청·회심'곡이 있다.



범패

삼현삼죽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



대금



중금



소금





## 우리나라 음악사 이야기 2

### 고려 시대 음악

고려 시대에는 통일 신라의 음악 문화가 전승되는 한편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인 향악과 당나라의 당악, 송 나라의 대성 아악이 편종, 편경과 함께 전래되었고,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서 악(樂, 기악), 가(歌, 노래), 무(舞, 춤)가 연주되었다. 고려 시대 음악으로는 문묘제례에 연주되는 '문묘 제례악'과 '보허자', '낙양춘' 등이 있다. 현행 '문묘 제례악'은 중국의 아악으로 세종 때에 정비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문묘 제례악:** 공자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 안자, 자사 등의 유학자와 설총·최치원과 같은 우리나라의 유학자에게 제사하는 문묘제례에 쓰이는 음악이다. 오늘날의 문묘제례는 성균관대학교 내의 문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지내고 있다.



문묘 제례악



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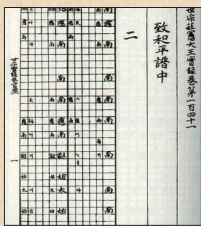


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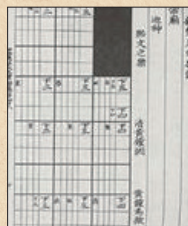
### 조선 전기 음악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숭상하여 예와 악을 중히 여겨 세종은 아악을 정리하고 악기를 제작하는 한편 정간보를 창안하여 '여민락', '보태평', '정대업'과 같은 곡들을 작곡하는 등 음악을 크게 융성하게 하였다. 세조는 '정대업'과 '보태평'을 정리하여 '중묘 제례악'으로 사용하였으며, 정간보를 개량하여 향악의 선율을 적기에 편리한 오음약보를 창안하였다. 세종 24년에 성현 등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완성한 "악학궤범"은 궁중음악은 물론 음악이론, 악기진설법, 무용, 악기, 의복, 의물 등이 기록된 귀중한 자료로 잃어버린 음악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민락:** 원래는 '용비어천가'를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던 성악곡이었으나 지금은 기악곡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국 사신을 맞는 잔치나 왕의 행차 등에 사용되었다.



정간보



오음약보



악학궤범



여민락





## 조선 후기 음악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크고 작은 전란으로 많은 악기를 잃어버리고 악곡이 분실되어 궁중 음악이 위축되었다. 반면 선비 층이 향유하는 가곡, 가사, 시조와 '영산회상'과 같은 풍류 음악이 발달 하였으며, 서민들을 중심으로 남도 무속 춤의 반주 음악에서 기원한 시나위, 산조, 그리고 판소리 등의 음악이 성행하게 되었다.

**시나위:** 남도 지방의 무속 음악에서 발전한 기악 합주곡으로 여러 악기가 즉흥적으로 서로 다른 가락을 연주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합주와 독주가 번갈아 가며 연주하며, 살풀이춤의 반주로도 사용된다.

**산조:** 판소리와 시나위의 영향을 받은 기악 독주곡으로 대개 장구로 반주를 한다. 처음에는 느린 속도의 진양조로 시작하여 점차 빠르게 연주되는 한배에 따른 형식의 음악이다.



시나위



가야금 산조

## 근·현대 음악

갑오개혁 이후부터 1950년까지는 서양 음악의 유입과 일제 강점기, 전쟁으로 인한 전통 음악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나라 음악을 관장하는 이왕직 아악부를 통해 아악과 궁중 음악의 명맥을 이어갔으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양식 군악대가 창설 되고, 학교를 통한 창가가 보급되면서 서양 음악이 유입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가 설립되었다. 조양구락부의 후신으로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가 재출범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통 음악을 계승하였으며, 1951년에 개원한 국립국악원이 1955년에 부설 국악사 양성소를 운영하여 전통 음악 교육에 힘썼으며, 195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 대학에 국악과가 신설되었다. 이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립과 함께 각 지방의 관현악단 및 국악원, 실내악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통 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물놀이, 창극 등 무대화 된 전통 음악과 국악기의 개량이나 장르의 접목에 따른 창작 국악곡, 크로스오버 음악 등이 연주되면서 새로운 음악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왕직아악부의 문묘 제례악 연주 장면



국립국악원



국악 관현악단





# 배움 넓히기

1 민요는 어느 한 지역에서 불리는 향토 민요와 지역성의 한계를 벗어나 여러 지역에서 불리고 유행하는 통속 민요로 구분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 민요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구분		내용
향토 민요	노동요	거문도 뱃노래(전라도), 웅해야(경상도), 멀치 후리는 소리(제주도), 여주 논매는 소리(경기도), 훨훨이(경기도), 강릉 모심는 소리(강원도) 등
	의식요	지신밧기 소리(충청도), 상여소리(경상도), 성주풀이 소리(경상도), 탕건바위노래(전라도), 성주굿 고사소리(충청도) 등
	유희요	늦다리밧기(경상도), 강강술래(전라도), 싸름(황해도), 금다래공(황해도), 자진배따라기(평안도), 개고리 개골청, 훗노래(서울) 등

2 각 지역의 아리랑을 감상하고 느낌을 비교해 보자.

구분	경기 민요	동부 민요	남도 민요	서도 민요
제목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해주 아리랑
토리	경토리	메나리토리	육자배기토리	수심가토리
장단	세마치장단	세마치장단	세마치장단	세마치장단
특징 및 느낌	가락이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억양이 강하다.	꺾는 음, 떠는 음, 평으로내는 음을 사용하여 가락이 구성지다.	꺾는 음, 떠는 음, 평으로내는 음을 사 용하여 가락이 구성지다.

3 알리고 싶은 우리나라 음악을 찾아 모둠별로 홍보물을 만들어 전시해 보자.

구분	시조·가곡	수제천	영산회상	종묘 제례악
1모둠	보고서			
2모둠	포스터			
3모둠	UCC			
4모둠	홈페이지 게시물			
5모둠	신문 만들기			



#### 4 종묘 제례악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의 기능을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구분	학습 활동
제사 문화(절차와 순서)	예 영신례(신을 불러 들이는 것), 전폐례(폐백을 드리는 것), 진찬례(찬을 올리는 것), 초헌례(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 아헌례(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 종헌례(마지막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 철변두(제사 지낸 그릇들을 닦는 것), 송신례(신을 보내는 것) 이러한 절차에 따라 종묘 제례악도 악, 가, 무와 함께 행해진다.
종묘(위치, 역사, 용도)	예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역사: 태조 3년(1394)에 착공하여 정전을 짓고 세종 3년(1421)에 영녕전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타 버리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종로 3가에 남았다.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를 올리는 용도였다.
종묘 제례악의 역사 (세종·세조 시대의 구별)	예 종묘 제례악은 종묘와 영녕전의 제사에 사용되는 기아고가 노래와 무용을 말한다. 종묘제례악에 사용되는 음악인 정대업과 보태청은 세종 때 만들어졌으나, 그 당시에 회례악으로 사용되었고, 세조 때 이르러서 종묘 제례악으로 사용되었다.
종묘 제례악의 기능	예 종묘 제례악은 의례의 기능으로서, 사회체제의 유지와 통합, 완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다. 즉 개인이나 사회의 '중화(中和)'를 이루는 것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오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길례, 즉 제례이다.
종묘 제례악의 구성 요소	예 종묘 제례악은 종묘와 영녕전의 제사에 사용되는 기아고가 노래와 무용을 말한다. 종묘제례악에 사용되는 음악인 정대업과 보태청은 세종 때 만들어졌으나, 그 당시에 회례악으로 사용되었고, 세조 때 이르러서 종묘 제례악으로 사용되었다.

#### 5 민요 평가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성취 수준		
		우수	보통	노력
발성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하였나요?			
표현	시김새, 말붙임새를 정확히 표현하였나요?			
태도	적극적인 태도로 불렀나요?			

#### 6 감상 평가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성취 수준		
		우수	보통	노력
음악 요소 및 개념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할 수 있나요?			
음악의 쓰임	음악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발표력	음악을 듣고 느낌이나 생각을 자신 있게 발표하였나요?			
감상 태도	감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협동성	모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